

느긋한 姜 “효과 극대화...이기는 단일화 돼야” 조급한 李 “16일 이전에...방식 강후보에 일임”

강운태·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 시기 이견

막후 정치력 주목...이병완 후보는 3자 단일화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후보 전략 공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예비후보와 이용섭 예비후보가 단일화 시기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단일화 작업이 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단일화 시기를 놓고 두 후보가 ‘동상이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강 후보는 단일화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다소 느긋한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단일화 방식을 강 후보에게 일임하더라도 최대한 단일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조급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밀실 공전을 심판하고 낙하산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소속 후보간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며 “오는 16일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단일화를 매듭짓자”고 강 후보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 후보는 “16일 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 일 전에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두 후보간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5월 말 단일화를 거론하는데 30~31일 사전투표일을 감안하면 후보등록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느냐보다는 광주의 명예와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김한길·안철수의 구태정치를 심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일화 방안을 강 후보에게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후보는 기자회견을 하고 “말실아함 나눠먹기로 시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공천된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5월말에 단일화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 측은 시간에 쫓겨서 하는 단일화 보다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때를 택하자는 입장이고, 지지세력을 한데 모아서 선거 막바지까지 끌어간다면 충분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 후보는 또한, “말실아함 공전을 깨고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한 단일화가 중요하지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며 “이병완 후보를 포함한 무소속 3자 단일화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완 후보는 논평을 내고 “단일



강운태 예비후보(사진 왼쪽)와 이용섭 예비후보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화는 정치적 철학과 정체성, 지향점의 일치 전제돼야 한다”며 “무소속 3자 단일화 방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등록일 이전 강 후보와 이 후보간 단일화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예비후보로 등록된 이 의원은 후보등록(15~16일)을 하면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때 의원직에서 퇴직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신분을 잃게 된다.

이 후보는 “단일화 경선에서 지더라도

국회의원 사퇴서를 철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강 후보 또한 광주시민만을 보고 함께 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일화 시기와 맞물려 있는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강 후보와 이 후보가 막후에서 정치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윤장현-강운태-이용섭 3강 구도가 되느냐, 윤장현-무소속 단일후보 양강 구도가 이변 광주시장 선거에서 최대 관심사가 됐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변화 위해 전략공천 선택 충분한 논의 못해 시민에 죄송”

안철수 공동대표 일문일답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12일 국회 출입 광주지역 기자들과 전략공천 결정의 당사자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의 오찬 간담회가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략공천된 윤장현 후보가 구 새정치연합 출신이라는 점에서 질문이 안철수 공동대표에 집중됐다.

안 대표는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과 관련,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 사과’ 등을 반복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월호 참사로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높고 있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아직 22~23%에 머물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정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 정치인으로서 참담하고 죄송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전략적으로 이용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의 생각을 국민에게 말씀드리면서 신뢰를 회복하겠다.

-새정치를 토대로 통합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새정치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잡음도 나지 않으면 좋아 보일 수 있으나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이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자체가 민주적 과정이다.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대한 입장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에서 죄송한 마음이다. 하지만 전략공천을 통해 지도자가 된 분도 많이 있다. 윤장현 후보는 수직적이고 관료적이지 않은 수평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광주를 새롭게 바꾸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의 삶의 궤적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무시됐다. 과반 이상의 최고위원들도 반대했다.

▲기초연급 처리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하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의해서 진행했다. 절차에 의해 위임을 받아 결정했다. 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과의 소통을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죄송함이 있다.

-야말에·연휴에 전략공천이 결정되면서 의혹과 반발이 컸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략공천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시간도 촉박했다. 미리 밝히고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광주



시민께 사과 드리고 싶다. -낙하산 공천, 지분 공천이라는 반발도 크다

▲윤장현 후보를 알고 지낸지가 1년 정도 밖에 안 된다. 과거 새정치연합 하면서 영입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윤 후보도 자신을 안철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광주시장 후보로 왜 적합하지 않나.

▲그분들을 폄하할 적이 없다. 훌륭한 신 분들이다. 다만 광주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전략공천을 선택했다.

-광주시장 선거 패배시 책임지겠다.

▲광주 시민들의 선택을 믿겠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인가.

▲윤 후보가 당선되면 윤 후보가 잘한 것이요 현명한 선택은 시민들이 할 것이다. 패배도 시민들의 뜻이고 판단이다. 유권자의 판단은 항상 옳다.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기념식에 참석하겠다.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통과됐는데도 제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방선거 기간에 광주에 어느 정도 머물 생각인가.

▲전국적 상황이 녹록치 않다. 최소한 며칠 정도 머물면서 광주시민과의 소통에 나서겠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이전에 광주를 방문할 생각이지만 공천 막바지여서 유동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 자격, 수사 결과에 달렸다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 확정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당에서 당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해 전남지사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낙연 의원 측 관계자 휴대전화에서 1억 원 짜리 수표 6장이 있는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표 출처 및 현재 진행중인 당비 대납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진행 상황 주시” 휴대전화에 찍힌 수역원 수표 ‘당비 대납’ 연관성 여부 초점

12일 광주지검 및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 비서관 A씨와 지역사무소 관계자 B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1억짜리 수표 6장이 찍혀 있는 휴대전화 사진을 확보, 진상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이 의원 측 ‘당비 대납 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 최근 비서관 A씨와 지역사무소 관계자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수역원 수표 사진’에 대해서 “보고받

은 바 없다. 수사상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이 이날 관계자 스마트폰에서 1억원짜리 수표 6장이 확인됐다 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지인들간 ‘선물’로 주고받은 사진에 불과하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권 등에서 의혹만 제기됐던 ‘수표 사진’의 존재 여부가 이 의원 측 발표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까지 확인된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된 A씨가 선관위 고발 대상이 아닌 인물인데다, 선관위 고발에서 비롯된 수사 과정에서 대납 당비비서관위 고발 금액보다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수사 확대 분위기가 강했다. 검찰도 선관위가 고발한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여기에 확인된 ‘수역원 수표 사

건’에 대한 출처 파악 뿐 아니라 당비 대납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에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수표 사진과 관련,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한모씨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54분께 병원사업을 하던 친형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이다’고 건넬받은 1억원짜리 수표 6장을 장난삼아 캠프에서 일하는 동료 조모씨에게 전달했다”며 “당비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조씨의 스마트폰에서 수표 사진이 발견돼 여러 가지 억울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 측은 이어 “검찰이 수표를 추적하면 출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측의 수표추적 요청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글썩요”,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4
지리산권 방문의 해
VISIT JIRISAN AREA 2014

1004종 세계명품 장미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소 : 섬진강기차마을

| 장미공원 야간개장 | 5.23(금) ~ 6.1(일), 6월중 주말, 휴일